

## 문재인 대통령,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전화 통화 관련 서면브리핑

2020-04-02



문재인 대통령은 4월2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15분간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제2차 P4G 정상회의 일정 및 코로나 사태 극복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를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연기하게 됐다”면서 “덴마크의 양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최 일정은 덴마크 등 P4G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시기를 모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덴마크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글로벌 이니셔티브로서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를 발족했고, 2018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차 P4G 정상회의를 개최

프레데릭센 총리는 “한국 정부의 P4G 정상회의 연기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한국이 P4G 정상회의를 내년으로 연기해서라도 개최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님이 ‘녹색 리더십’

을 강력하게 발신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간 우리 정부가 축적한 방역 및 치료 경험과 관련 임상 정보를 덴마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덴마크에서는 의료장비 공급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어서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이 매우 기대된다” 면서 우리의 진단키트 및 의료 기기 구입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덴마크 측과 우리 기업이 진단키트 수입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진단키트와 방역 물품, 의료 물품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알려 주시면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도움을 드리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프레데릭센 총리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덴마크 당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개최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의 합의를 설명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고 국가 간 교역이 계속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고, 프레데릭센 총리도 이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2020년 4월 2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